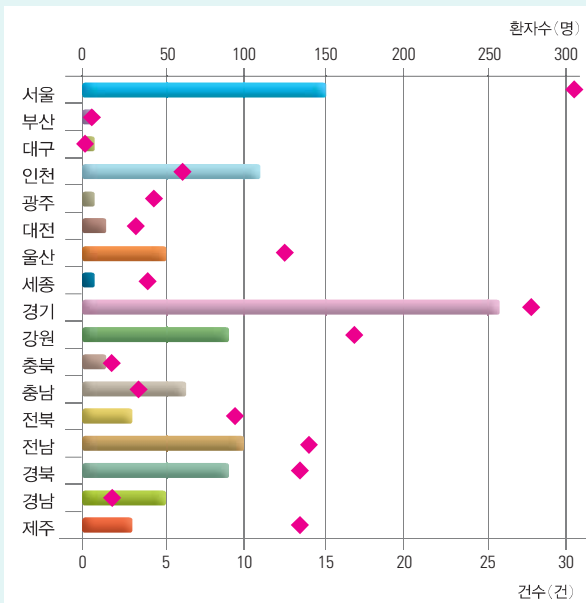


11월 가을철 식중독 주의 정보 알림

노로바이러스·퍼프린젠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음

발생 지역
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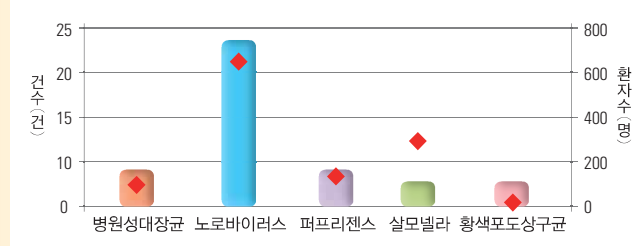


- 주로 경기(27건), 서울(15건), 인천(11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
※ 경기(수원4건), 서울(강남4건), 인천(부평3건) 등의 지역은 특별히 주의 필요

원인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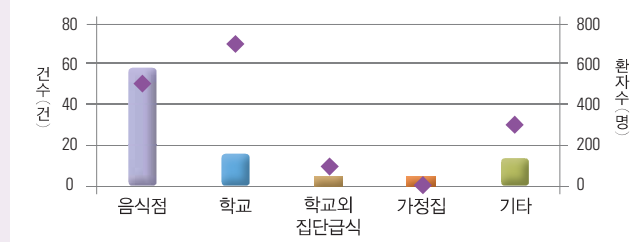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

- 주요 발생원인균 중 노로바이러스(24건)으로 인한 발생이 많았음
※ 퍼프린젠스(7건), 병원성대장균(7건) 등

발생시설 현황

막대 : 건수 ◆ : 환자수



- 음식점(59건), 학교(17건), 기타(15건) 순으로 발생이 있었음
※ 칫집·일식(25건), 교교(7건), 수산물도소매직판(4건)에서 발생이 많았음

원인균별 주의식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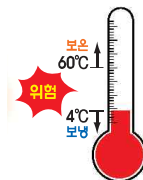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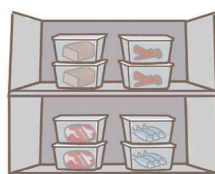
노로바이러스



예방요령



퍼프린젠스



* 최근 5년간('11~'15) 발생한 식중독 현황을 분석한 자료

* 식중독예방, 컨설팅, 홍보 등에 식중독 예측지도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(식약처 홈페이지)